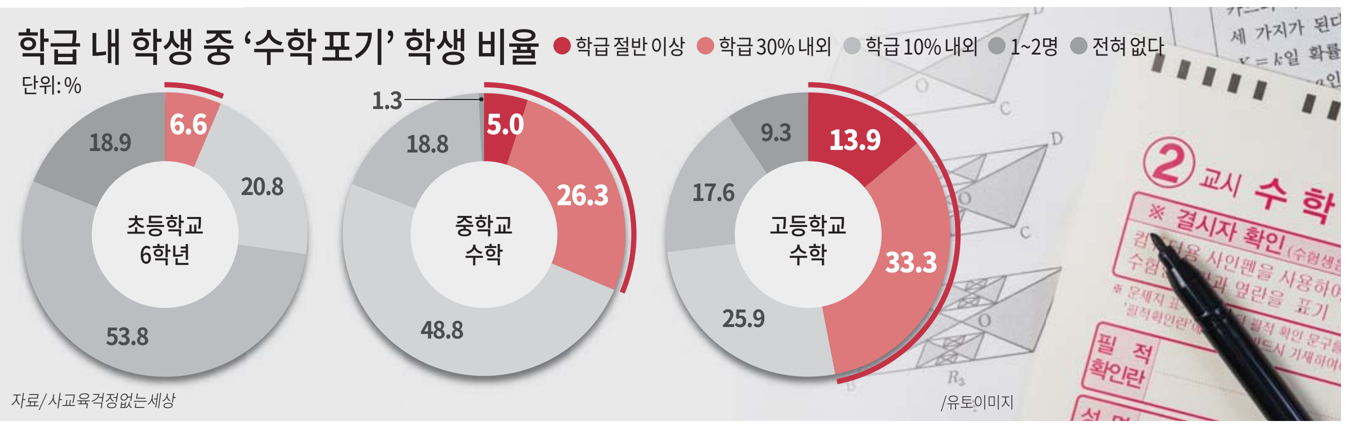
수학 사교육에도 학생 30% "이해 못해"… 교육구조 개선 필요

초·중·고 수포자비율 6~10%p↑
학생들 포기 이유는 '문제 난도'

교사들도 "공교육만으론 어려워"
예방 위해 맞춤형 소그룹 강화해야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토이미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선행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의존해도 수학 포기 학생이 줄지 않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수학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포자 예방을 위해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진단 확대와 평가·수능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7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전국 초·중·고 수학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60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60곳 등 총 150개교에서 진행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학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17.9%,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타난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으로, 중학교 3학년은 2.6배, 고등학교 2학년은 3.3배에 달했다. 특히 2021년 실시된 동일 조사와 비교하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수포자 비율이 약 6~10%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문제 난도가 너무 높아서'(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들은 당장의 난이도를, 교사들은 기초학력 붕괴의 누적을 문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교육 의존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 32.8%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가운데 85.9%는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30.3%는 사교육에서 배우는 선행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통해 수포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채 학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만으로는 수학 수업과 평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 수학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60.2%) ▲학교 수학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46.3%)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의 70.4%는 수능 킬러문항 대비를 위해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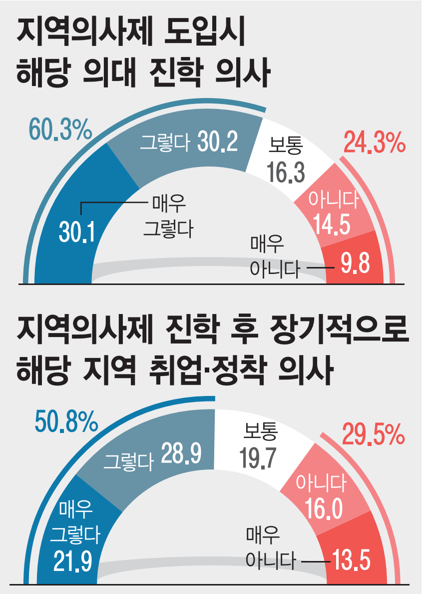
수포자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학생 간 수준 차이와 학습 무기력, 지도 시간 부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교사는 '수 개념 부족'(34.3%)과 '흥미·자신감 결여'(22.1%)를, 중학교 교사는 '학생 간 수준 차이'(33.7%)와 '지도 시간 부족'(25.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초학력 부족'이 42.3%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수포자 예방을 위해 교사들은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0%)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으며,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변별력을 완화한 학교 평가 및 수능 제도 개선(1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상우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은 "수포자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난도 중심 상대평가와 사교육 의존 구조가 만든 결과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평가 제도와 수학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지역의사제 시행 시 "의대 위해 거주이동"

지원자격 부여 지역으로 이동 응답
'매우 그렇다' 28.6%, '그렇다' 41.2%
전형 도입 때 의대 진학 의사 60%



/뉴시스 그래픽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 지역을 옮기려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중·고 수험생 및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향후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는 28.6%, '그렇다'는 41.2%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지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지 이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지역의사제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0.3%로 절반을 넘었다. '매우 그렇다'는 30.1%, '그렇다'는 30.2%였으며, 진학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3%였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에 입학·졸업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 등이 지원되며, 졸업 후에는 최소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해진 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39.6%)와 '의사가 되고 싶어서'(3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등록금·기숙사비 등 혜택 때문에'(10.5%), '지역의사가 된다는 점이 의미 있을 것 같아서'(8.3%) 순이었다. 지역의사제의 공공적 취지보다는 입시 경쟁과 진학 전략을 고려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진학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싶지 않아서'가 40.6%로 가장 많았고, '지역의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가 32.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 것 같아서'(14.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지역의사제 진학 이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0.8%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21.9%, '그렇다'는 28.9%였으며, '아니다'는 29.5%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장기 정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의 10%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 미만(21.5%) ▲30% 미만(17.8%) 순이었으며, '50% 이상'도 10.8%로 나타났다.

의무 복무기간 10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길다'는 응답이 28.0%, '짧다'는 응답이 25.8%로 집계됐다.

입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3.8%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5.5%였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가 정책적으로 확정될 경우, 실제 지역 이동 현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인권 내에서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 간 이동, 서울권에서 경인권으로의 이동 등 연쇄적 이동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수출 中企 지원 다변화로 경쟁력↑

수출업무 3대 간소화, 마케팅 지원

수원시는 미국 관세 인상과 환율 상승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 정책은 수출 업무 3대 간소화와 AI 기반 3대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실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수출대금 결제 간소화 사업은 비자(Visa)와 협력해 상담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기업당 결제 이용료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한다. 기존 전신환송금(T/T)과 신용장(L/C) 방식은 서류 제출과 중복 은행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플랫폼을 활용하면 7종 무역서류 제출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바이어와의 계약 성사율과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수출 절차 간소화는 EMS를 통한 직배송 지원으로 기존 5단계 수출 과정을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단축하며, 1건당 2,000㎏, 업체당 연 최대 250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 홍보 간소화는 아리랑 TV 국제방송을 통해 130여 개국에 기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2025년에는 1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들은 영상 송출 후 해외 문의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했다.

AI 기반 3대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 대상 AI 홈페이지 구축, AI 무역청을 통한 계약서 해석·바이어 협상·수출 전략 수립 등 21종 업무 자동화, AI 전자 카탈로그 제작을 통한 SNS 및 전자무역청 홍보를 포함한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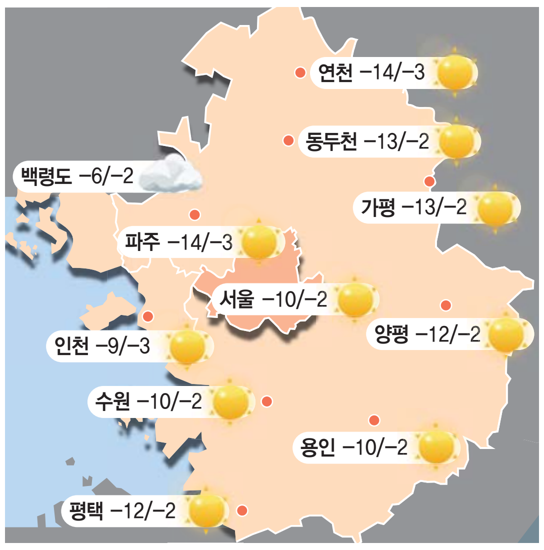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9 | 해짐 / 17:51

1월 28일(水)
음력 : 12월 10일

수도권 날씨 -10 ~ -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사진 뉴시스

▲日다카이치 "北핵보유국" 발언에 日정부 해명…"입장 변화 없어"

▲베네수 임시대통령, 美 간섭에 불만 표출 "명령 중단해야"

▲中 공업이익, 지난해 1~12월 0.6% 증가…4년만에 반등

▲12월 日 기업서비스 가격 2.6%↑·0.1P 하락…"인건비 등 전가 계속"

▲EU, 2027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최종 승인…러 "자율성 상실"

▲트럼프 "이란, 미국과의 협상 원해"…美 항모 중동 도착